

2026. 8. 30

제117권 35호

주일1부(묵상)예배

오전 7시30분		인도:김기중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송 영		찬	양	대
찬 송 *서서	 31장	다	함	께
성 시 묵 상	 83. 빌립보서4장	다	함	께
고백의기도		다	함	께
사죄의선언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찬 송 *앉아서	 305장	다	함	께
기 도		조재복집사		
찬 송 묵 상	...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양나리에나집사) ...	다	함	께
봉 헌 송 *서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함	께
봉 헌 기 도		황성훈목사		
교 회 소 식 *앉아서		황성훈목사		
찬 양	 친구 되신 우리 예수	살롬찬양대		
찬 송	 637장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에베소서2:1~10(신약P,311)	황성훈목사		
말 씬 선 포	 【함께 만드는 작품】	황성훈목사		
말 씬 묵 상		다	함	께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	함	께
축 도	 송영	황성훈목사		

오늘의 말씀 / 황성훈 목사

성령강림절 후 열넷째 주일

에베소서 2:1~10 / 함께 만드는 작품

주일2부(전통)예배 / 오전 9시

인도:조경화목사

찬 송	31, 305, 290, 55장	다 합 께
교 독	83. 빌립보서4장	다 합 께
기 도		배외수장로
찬 양	믿음의 고백	호산나찬양대

주일3부(세대통합)예배 / 오전 10시30분

인도:정영오목사

찬 송	...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305, 290, 은혜 아니면	다 합 께
기 도		조주규장로
찬 양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 글로리아찬양대
파송과위탁		다 합 께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일4부(열린)예배 / 오후 12시

인도:황성훈목사

경배와찬양	소리엘찬양단
목 회 기 도	인 도 자

† 내주기도 : I 부 - 장민수 집사 / II 부 - 박경봉 장로 / III 부 - 조재일 장로
IV 부 - 조영욱 집사 / 청년예배 - 박주용 청년 / 찬양 - 강인원 집사 / 수요 - 유영심 권사
† 이달의 강단 꽃장식 : 강성갑 신미영 김종관 최희숙 조재일 장애영 조정흙 조동흙 강문희 김명욱

* 9월 예배주요인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
I	권오택	권영일 고주영 이수현	권대기	문순금	정영수 김종관 권대기 권오덕 길건성 박수권 정위동 조대용 황병락 사봉권 이국환 박영재
II	배승룡	권영대 손영숙 허미자	손대호	고남순	
III	권오규	김준광 임은주 김미정	권민영	강은숙	
IV	배외수	권인한 최미자 서금숙	이석필	이명희	

주일5부(청년)예배 / 오후 1시45분

경배와 찬양 - 하느래워십 / 기도 - 권기원청년

설교 - 누가복음12:13~21(신약P,114) /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 정영오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3시 (5교구 헌신예배 및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 인도:천세동장로(백부장)

경배와 찬양 - 새롭찬양단 / 찬송 - 298, 54 / 기도 - 김율리권사(삼십부장) / 찬양 - 시온찬양대
성경 - 아가1:1~6(구약P,960)-장애영집사(십부장) / 겐으나 아름다우니 / 권훈목사

수요오전예배 / 오전 10시30분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고혜란권사

설교 - 누가복음6:27~38(신약P,99) /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 윤정호목사

수요저녁예배 / 저녁 7시30분

경배와 찬양 - 르비딤찬양단 / 기도 - 김경옥권사 / 은혜나눔 - 박진미집사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사도행전8:1~4(신약P,199), 11:19~26(신약P,207) / 그리스도인 / 황성훈목사

묵 상 노 트

“함께 만드는 작품” (에베소서 2:1~10)

- _____의 근거
묵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기가 과연 내게 어울리는 자리인가?’ 라고 물을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자리일 수 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하나님과 함께하는 _____
묵상을 위한 질문)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곧 ‘포이에마(ποίημα)’ 라고 부른다.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는 작품이라는 뜻이다. 실패와 아픔, 좌절과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질 나의 삶이 어떤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는가?